

‘한국 요트 기대주’ 하지민, 한국최초 ‘은메달’

2016 레이저 유럽선수권대회

리우올림픽 메달 획득 가능성
요트協 예산 지원·관심 기대

한국 요트의 기대주 하지민(26·해운대구)이 2016년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열린 레이저 유럽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예선시리즈 6경기과 결선시리즈 6경기로 총 12경기가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하지민은 예선시리즈를 10위로 마치며 상위플리트(골드플리트)에서 결선시리즈 경기를 치렀다. 상위권 선수들만 참가하는 상위플리트에서 하지민은 대회 마지막 날 100% 기량을 발휘해 10번째 경기를 1위, 11번째 경기를 9위, 12번째 경기를 3위로 마치며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유럽 강호들이 대거 출전한 대회에서 하지민의 2위 입상은 리우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민은 지난 2015년 레이저 세계선

수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며 3번째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다.

하지민은 우리나라의 올림픽 첫 요트종목 메달 획득을 목표로 올해 1월 부산에서의 동계훈련, 2월 스페인에서 외국인코치(Javier Hernandez)와 집중 훈련을 하며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민은 동양인이지만 서양인 못지 않은 체격과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대회 입상과 국내 레이저 종목에서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요트 선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왔다. 그는 광주우, 인천 아시안게임 요트 레이저 종목에서 2연패를 한 한국 요트의 간판선수다.

하지민은 14일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시작되는 국가대표 국내훈련에 참가한 후 20일 진흥철 코치와 함께 유럽 훈련을 위하여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요트협회는 리우 올림픽에서 어느 때 보다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선 해외 우수코치의 초청, 전지훈련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출전 경력이 필요해 관련 기관에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엄용대 기자



한국 요트의 기대주 하지민이 2016년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열린 레이저 유럽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구자철 ‘첫 헤트트릭’ 기록했는데...

3-3 무승부에 팀 승리 못 챙겨

구자철(27·아우크스부르크·사진)이 프로데뷔 첫 헤트트릭을 수신했지만, 팀 승리를 챙기지 못해 빛이 바랬다.

구자철은 5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과의 2015~2016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5라운드에서 출전해 리그 5·6·7호골을 신고했다.

출발이 좋았다. 구자철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5분 알렉산더 에스바인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구자철 방향으로 흘렀다. 구자철은 발리킥으로 공을 문전으로 쏘아보내 득점에 성공했다.

두 번째 골도 그림이 비슷했다. 전반 44분 이번에는 알프레드 핀보가손의 슈팅이 레버쿠젠의 오른쪽 골대를 때리고 구자철에게 향했다. 구자철은 상대 수비수들이 몸을 던지는 가운데 침착하게 오른발로 밀어 넣었다.

자신감이 오른 구자철은 후반 12분 그림같은 발리킥으로 헤트트릭을 완성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길게 넘어온 공을 핀보가손에 가슴으로 떨거렸고 구자철이 기다렸다는 듯 오른발 다이렉트 슈트로 공을 상대 골대 안으로 꽂아 넣었다.



넣었다.

구자철은 분데스리가에서는 물론 자신의 10년 프로 인생에서 첫 헤트트릭의 감격을 누렸다.

아울러 리그 7호골 고지를 밟았다. 이는 자신의 분데스리가 최다골 기록이다. 지난 2011~2012·2014~2015시즌 5골을 터뜨린 것이 기존 리그 최다골이었다.

유럽 통계전문사이트 '후스코어닷컴'은 구자철에게 만점(10점)에 가까운 9.43점을 부여했다. 양팀 통틀어 최고 점이다.

하지만 기록적인 맹활약을 펼치고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다. 뒤집힌 경기결과 때문이다.

구자철의 세 골로 3-0으로 앞서가던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15분 이후 3골을 헌납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3-2로 앞서다 후반 46분 페널티킥 골을 내준 장면은 재앙과 같았다. 결국 2분 뒤 하칸 찰하노글루에게 실점했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안방 팬들에게 실망감을 가득 안겼다.

구자철은 6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지막 몇분은 우리에게 재앙과 같았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3골을 넣고 3-0으로 앞서갔다. 그 뒤에 수비에 조금더 공을 들여야했다"며 "레버쿠젠은 3골을 넣어 승점 1점을 챙겼다. 부끄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상주상무축구단 새 유니폼 공개

위장술로 진짜 군인의 모습을 드러낸 상주상무프로축구단(대표 백만홍)이 2016시즌 새 유니폼(사진)을 공개했다.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제작했던 밀리터리 유니폼 'WE ARE REAL SOLDIER'가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시즌2로 제작됐다.

2016시즌 유니폼은 강인한 느낌을 주는 군인의 상징인 '밀리터리'를 모티브로 제작했다.

올 구장 유니폼은 앞면 상주상무 표기를 기존 고딕체에서 캘리그래피로



변경하고 디자인적 측면의 느낌을 살렸다.

원정 유니폼에는 상주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꽃감색으로 글씨를 새겨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

올 시즌 전사방식의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수사불패의 군인정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상주상무 관계자는 "오는 9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오픈경기 때 새로 제작한 유니폼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유니폼 구매는 13일 개막전 이후 프리오더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오 기자

“경주 국제태권도대회 준비 만전”
3일 집행위원회 개최

스포츠 명품 도시 경주시가 오는 6월말부터 열리는 '2016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에는 대회 컨트롤타워인 조직위원회를 창립을 시작으로 3일 대회의실에서 집행위원장인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운영석 부회장 및 성재준 전무이사, 이상문 경주시 태권도협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준비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회가 열렸다.(사진)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각종 제 규정과 예산사용 등 대회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에서 대



한태권도협회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한 2회째인 2014년 대회를 통해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점들을 도출하여 이번 대회에 충분히 개

선?반영 하여 완벽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셔틀버스, 자원봉사자 운영, 시티투어 등 갖가지 개선의견이 나왔다.

이원삼 기자

경북도 청어전신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전통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경북의 신성장을 이끌어 갈 명품행정지식산업도시

시내 2천년의 꿈,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경북도민의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통천면·예천군 효령면 일원
- 면 적 : 10,900㎡
- 사업기간 : 2010~2027년
- 세 입 비 : 2호 32억 원 정도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